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1월 12일(금)
--(음력 10월 8일)--
Пятница
12 ноября 2021г.
№ 43 (1196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빻세(왕만두)> 요리 체험교실이 열렸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고유어 말하기> 유·청소년 콘퍼런스 개최

<고유어 말하기> 제 4회 지역 유청소년 콘퍼런스가 11월 12일(금) 오전 10시에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예술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에 노글리키, 포로나이스크, 네크라슈카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닙흐어와 우일타어로 연설을 발표한다. 어린 참가자들의 발표문은 원주민의 전통과 가족의 인물사 연구를 주제로 하고, 추네르 탁사미를 비롯해 소수민족 원주민의 생활, 삶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과 연관된 측면을 반추한다.

하바롭스크 변경 니콜라예스크-나-아무레 지역과 불라브 마을 학생들의 연설은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며 최우수 고유어 연설자는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후원으로 '북방의 보물. 러시아의 장인과 예술가들'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2개 국어로 즉시 발급

러시아 국민들은 11월 8일(월)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증명서를 받게 되었다. 증명서는 러시아어와 영어 2개 국어로 전자상 및 서류상으로 발급된다. 보건부의 해당 법령은 법률 정보 공식 사이트에 게시돼 있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3일 이내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전자문서 형식으로 자동 작성된다. 이런 시행 속에 첫 접종 후 정보들이 정보 계정의 자료 속에 백신 접종에 대한 기록으로 남는다. 목적은 국가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규정 발효 이전에 작성된 증명서는 2022년 3월 1일까지 자동적으로 다시 작성된다.

원하는 주민은 서류상으로 지닐 수 있는 새로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다기능 센터로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 농촌 지역과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이 증명서를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단체 정부의 보건 분야 실무자들이 발급해야 한다.

새로운 증명서는 본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백신 접종 및 재접종에 대한 자료들, 백신 접종에 의학적 부작용 사실에 대한 정보, 코로나19 완치에 대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증명서에는 큐알 코드(QR-code)를 위한 장소도 예시하고 있다.

푸틴, 극동지역에 물품 배송 상황 통제

팬데믹과 관련한 국제 물품 배송 문제가 러시아 연방 정부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통제에 들어갔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이 언론에 전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국제 물류 유통의 위기로 확대된 물류유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세계적 코로나 유행 후 나타나는 특징적 상황) 현상으로서 정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 문제가 대통령의 통제 아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실제 극동 항구는 물류 체증에 걸려 있어 증가하는 수입 물동량을 기반 시설이 간신히 해결하고 있다."며 "이에 중앙 정부가 해당 문제를 채택해 책임을 공식화하여 언론에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페스코프 공보수석이 밝혔다.

연해주 항구는 중국으로부터 물류 운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급격히 증가하는 물동량으로 마비돼 있어 사할린, 추코트카, 캄차트카, 마가단 지역으로 운송되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의 운송이 정체돼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아니와 지역 주택 건설의 현황 점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방 출장차 <녹색 지구> 주택단지에서 건설 작업을 점검했다.

노워트로이츠코예 마을에는 올해 연말까지 5층 아파트 3개 동과 8층 아파트 2개 동이 준공될 전망이다. 이에 주택의 상당 부분은 사할린 주민들이 대출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구입하고 있다.

<녹색 지구> 단지는 8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다. 지난해 연말에는 5층 아파트 3개 동과 8층 아파트 2개 동이 준공되었고 올초에는 8층 아파트 1개 동을 더 건설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건설자들이 9층 아파트 3개 동을 더 건설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은 가운데 2023년에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지사는 건설 과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제반시설 확보와 가스 보일러 가동으로 건설자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소규모 구역의 주택 일부를 노후(老朽)주택으로부터 사할린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돔(ДОМ) 금융개발연구소와 협력 문제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체는 용납할 수 없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강조했다.

주택 건설 단지 방문 시 주지사는 입주 예정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지난 2년간 800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주택을 얻기 위해 사회적 지원금

덕분에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주 정부 예산에서는 이를 목적으로 18억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190개의 통지서에 따른 주택 증명서는 앞으로 3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니와 구역은 사할린주에서 주택 건설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아니와 중심지의 푸도와 거리에는 각각 48 세대의 아파트 2개동이 운용되며, 트란스포르트나야 거리 새 주택 단지의 아파트들은 재난기금으로 이주민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아니와, 트로이츠코예, 노워트로이츠코예 지역의 6개 동 다세대 주택들은 내년까지 준공해야 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매해 50만㎡의 주택 건설에 대한 전망을 설정했다. 이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한 약 7천 세대를 수용할 아파트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주택 건설용으로 370개의 전망적인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극동의 주택가'는 달네예, 노워알렉산드롭스크, 미출료브카 마을에 조성될 전망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2개의 큰 구역이 형성될 예정인 가운데 7천 세대 이상이 들어서는 '우윤' 구역, 1만2천 세대가 들어서는 '세웨르니 로도크'가 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건설되는 주택의 3분의 1은 임대주택이거나 사회적 주택이다.

(주 정부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2021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설명회

영주귀국 대상자 1차 출국 예정일 11월 27일

지난 8일(월) 한국 외교부, 대한적십자사 등 국가 부처 관계자는 2021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화상 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유즈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올해 영주귀국을 신청하고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세 동포와 그들의 자녀가 모였다. 설명회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과기동 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회장이 참석했다. 화상 회의에 안산, 인천, 블라디보스토크 등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회의 진행은 외교부 이희석 사무관이 맡았다.

우선 외교부 정영수 재외동포 영사기획관이 인사를 전하면서 "사할린동포법이 전년에 개정, 확대되었고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의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금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분들이 국내로 오셔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쪼록 금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주신 관계기관 간에 교류와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많은 설명을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하였다. 사실 한적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 추진에 경험이 가장 많은 기관이다.

영주귀국사업 계획안에 따라 올

해 지원대상자들이 12월 안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사실은 귀국 날짜가 조금 앞당겨졌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이기욱 실무관에 따르면 1차 출국 예정일은 11월 27일 토요일, 2차는 12월 4일 토요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사할린에서 출발하는 특별기

를 타고 가시게 되고요, 저희 쪽에서 190명 정도의 인원이 출발하시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 실무관이 설명했다.

영주귀국 사업 진행 측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격리기간이 있어서 귀국기간을 앞당겼다 한다.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국이 인정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의무적으로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주귀국 대상자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격리를 배정된 아파트에서가 아니라 격리 시설에서 보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적십자 측에서 영주귀국자들이 입국할 때 냉동 식품을 안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입주 지역 명부도 소개되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 (배정기준)은 원활한 정착 및 편의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LH 건설임대주택 중 기존 사할린동포 거주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하려고 한다.

입주 희망지역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와 희망지역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배정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신규 신청한 경우 1순위로 보고,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의 동반가족인 경우, 사할린동포의 생년월일(법적)을 기준 고령순으로 입주 희망지역을 반영(2순위)한다.

"입주지역 중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데 각 지역 대도시마다 아파트들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안산, 인천 등을 많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방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기욱 실무관이 전했다. 1세 어르신들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아파트 배정은 11월 셋째 주에 있을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설명회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국적취득, 출입국 관련 사항, 코로나19 사항(PCR 음성확인서(필수),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등 설명도 하였다.

귀국하느라 짐이 많아서 짐을 가져갈 수 있는 양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줬고 한 사람이 2개 수하물(하나 23kg)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전해졌다.

회의는 질의문답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 러시아 황제 권력의 상징을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역사 박물관에서 <러시아 황제의 왕관> 전시회가 1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열린다고 종합 언론 다중매체가 전했다. 가장 높은 권력의 상징 중 하나의 모형이 사할린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전시되었다. 전람회는 <예술의 밤> 전 러시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1762년 예카테리나 여왕의 대관식을 위해 귀족 보석상인 게오르기 프리드리히 에카르트와 다이아몬드 세공사인 예레미야 포지예에 의해 두 달 동안 대형 여왕의 왕관이 제작됐다. 왕관은 아름다움과 완벽한 완성도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다이아몬드와 보석들, 인도산의 붉은 무광택 진주로 장식된 왕관에 값진 보석 중 가장 희귀한 보석은 청정석(스피넬)이다.

현재 여왕의 왕관 원형은 러시아 다이아몬드 재단 연맹이 보관하고 있다. 이 유물은 독특한 보석들의 불가사의한 작품의 일부로서 크렘린 궁 구역 밖으로 이송은 불가하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적 기술 덕분에 전람회 방문객들에게 예카테리나 2세부터 니콜라이 황제 2세까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군주들의 권력의 주요 상징들을 가까이 살펴보고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전람회 전시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박물관-전시센터에서 제공했다.

입장은 자유다.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увидеть главный символ императорской в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открылась с 4 ноября по 30 декабря выставка «Корона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ниманию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лена копия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знаменитых символов власти. Открытие экспозиции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Ночь искусств»

В 1762 году для коронации императрицы Екатерины II придворным ювелиром Георгом Фридрихом Экартом и бриллиантовых дел мастером Иеремией Позье всего

за два месяца была создана большая императорская корона. Она поражает совершенством исполнения и своей красотой. Корону украшают алмазы, бриллианты и индийские крупные матовые жемчужины, а венчает ее самый редкий из драгоценных камней короны – благородная шпинел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ригинал императорской короны хранится в алмазном фонд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ликвия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неделимой коллекции уникальных драгоценностей и не подлежит вывозу за территорию Кремля. Но сегодня благодаря соврем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у посетителей есть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коснуться и близко рассмотреть главный символ власти российских монархов, начиная с Екатерины Великой и заканчивая Николаем II.

Выставка предоставлена музейно-выставочным центро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바다표범들을 결박한 장애물 제거에 대한 영화 사할린에서 개봉

사할린의 사회 활동가들이 바다표범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다. 2021년 여름 북쪽에 외상을 입은 물개들을 돕기 위해 톨렌 섬(바다표범 섬)에서 2차 탐사단의 조사가 이뤄졌다.

자원봉사자, 학자, 수의사들로 구성된 탐사단은 64마리의 바다 동물들을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준 가운데 동물들이 플라스틱 포장 테이프, 어망 쓰레기, 생활 재활용 쓰레기들로 결박된 것을 제거했다.

이번 탐사단은 비영리 사회활동 단체인 '부메랑' 클럽과 '드루지야 오케아나(바다의 친구)' 클럽이 일부 수산업체의 협력과 사할린주 정부와 '시베리아와 극동 보존' 자선재단의 장려금 지원으로 조성했다.

탐사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지역 태평양 지리 연구소 캄차트카 지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의 수의학, 바츠키 국립 농업기술대학, '크로코질(악어)' 수의학 센터(캄차트카)의 협력 전문가들이 나섰고, 물개들의 장애물 제거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역 태평양 지리연구소 캄차트카 지부의 수석 과학 연구원인 블라디미르 부르크노브가 작업을 지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выпустили фильм о распутывании тюленей

Сахалин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ыпустили фильм о распутывании тюленей. Летом 2021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Тюлений состоялась вторая экспедиция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травмированным северным морским котикам. Команда, состоящая из волонтеров, учёных и ветеринарных врачей, освободила от пластикового мусора 64 животных. С них снимали пластиковые упаковочные ленты, обрывки рыболовных сетей, бытовой закольцованный мусор.

Экспедиц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екоммерче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луб "Бумеранг" и "Друзья океана" при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Сохранение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действию одной из рыболовных компаний.

Эксперт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экспедиции выступили камчатский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географии ДВО РАН,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етеринарной медицины, Вя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гр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ветеринарный центр "Крокодил" (Камчатка). Руководил работами по распутыванию морских котиков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Ф ТИГ ДВО РАН к. б. н. Владимир Бурканов.

<미래에 대해 배려로> 환경보호 포럼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미래에 대해 배려로> 청년 환경보호 포럼이 12월 3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1998년부터 '로드닉' 환경보호 센터 사회 단체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유·청소년 창작 마당'이 협력 지원한다.

유·청소년 및 청년 행사에서는 자신의 계몽 및 자연환경보호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적 자연환경보호 기획의 실현과 연구 진행에 따른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지닌 사람들을 찾는다.

대통령 장려금의 지원으로 올해 포럼 프로그램에서는 대표단의 강연, 주변 환경보호의 전문가들과 만남, <숲속의 학교를 들여다보라.> 기획의 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포럼의 참가 대상은 학교, 창작 문화회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 환경보호 그룹들 및 사회활동 단체들, 사할린주 청년 학자들과 사회활동 단체가 강조한다.

신청서 접수는 11월 26일(금)까지며, 이메일: Rodniknew@mail.ru, 전화 76-27-13, 8 962 581 87 13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포럼에 대한 세부 사항과 신청서는 '로드닉' 사이트에 게시돼 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맛있는 뽕세 함께 만들기

지난 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뽕세(왕만두)> 요리 체험교실이 열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최 아래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 체험교실에 35여 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참가 인원수가 제한돼 있는 가운데 사할린 한인들이 요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펼쳐진 행사에 참가자들의 다수는 러시아인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들은 주한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획, 또는 행사를 협찬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직원들이었다.

흙스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뽕세는 사할린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인기가 많다. 뽕세 만드는 법은 주한인협회 임원인 배영희 씨가 자세히 소개했다. 배영희 씨의 설명에 따라 요리 체험교실 참가자들이 먼저 뽕세 속(간 고기와 양배추)을 만들고, 반죽 발효도 직접 해보았다. 뽕세를 빚는 법은 좀 까다로웠다. 뽕세를 예쁘게 빚는 법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초등학생 김 니콜(9세)이 가르쳐 주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이 어린이가 뭘 가르쳐줄 수 있을지 의아해 했는데 뜻밖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걸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니콜 여학생이 너무 예쁘게 빚어 어른들은 계속 니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빛은 뽕세를 30-40분 쯤 후, 참가자들은 드디어 자신이 만든 완성품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요리 체험교실의 분위기는 참 좋았다. 뽕세를 만들며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처럼 기뻐하고, 맛있는 뽕세를 시식할 때는 만족함과 즐거움으로 웃음을 주고 받으며 뽕세를 맛보았다.

행사 진행을 통해 주한인협회의 여성 임원들 팀의 친목이 돈독하고, 크다는 걸 다시 느꼈다.

한인문화센터 15주년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오는 13일(토) 오전 11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씨름대회가 개최된다. 이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우승자들에게는 상품을 시상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울산 한-러 지방협력포럼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

국내 지자체 · 러시아 지방정부 양자회담
시, NEAR 제14대 의장단체 선정돼

한국과 러시아의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양국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엔 국내 17개 시·도를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지역 18개 지방정부 등 총 35개의 자치단체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8년 제1차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다.

포럼의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엔 울산·충남·전북·경북·제주·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트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1대1 회담을 진행했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 회담했다.

한-러 교류협력의 거점지인 연해주와의 양자회담은 연해주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정서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에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전달했다.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실현 방안 등을 협의했다.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무역상담회엔 16개 러시아 대표기업이 참여했다.

러시아 정부 북극항로 공식 수행기관인 로스아톰(Rosatom)과 에너지, 수소생산 공급 국영기업인 로스아톰 오버시스(Rosatom Overseas), 극동지역 항공사인 오로라 항공(Aurora Airlines)이 참여해 울산지역 관련 기업과 만났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선 양국 정부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 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박종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박병석 울산시장,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한국-러시아 정부인사와 지방정부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에너지 산업 분야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내용 등을 담은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을 결합해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양국 모두 새로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 3대 주력 산업과 더불어 수소경제·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상승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시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울산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와 협력 범위를 극동에서 기회의 땅 북극까지 확장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울산 포럼을 계기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포럼으로 정착돼 세계적인 지역협력의 모범사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제일일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연구의 역사: 주요 방향과 발전단계> 연구 논문 출판

올해 타슈켄트 바크트리아 출판사에서 한 발레리 세르게예비치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연구의 역사: 주요 방향과 발전단계> 연구 논문(624쪽)이 출판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으로서 철학자이자 민족학자이며, 유명한 유라시아 연구가인 그의 저서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역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주요 방향 및 발전단계를 조망하고 있다. 기존에 간행된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발전해 온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접근 방식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학자, 민족학자 사회학자, 민족문화센터의 활동가들은 물론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라고 연구논문에 소개돼 있다.

저서 감수자로는 역사학 박사 아쉬롭 A.A.(우즈베키스탄); 역사학 박사 부가이 N.F.(러시아); 역사학 박사 반병률(한국)이 나섰고 이 책은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다.

책은 러시아어로 간행되었고, 책 소개와 목차는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돼 있다. 박 발레리 연구가는 책을 쓰는 동안 지원해 준 가족들, 타이핑에 도움을 준 아내 한이윤, 서지 및 이름 색인 디자인을 해 준 딸 한 울가, 그리고 추천자, 감수자, 한국어 번역을 도와준 반병률, 홍우호, 윤상원, 김병일 교수님들(한국), 영문 편집을 해 준 사가라 아담스 박사(미국), 지원을 해준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본사 기자)



충남도, 러시아 교류 협력 '청신호'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서 사할린주 정부와 양자회담 개최

충남도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 이어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대면 교류를 재개하며 북방외교에 청신호를 켰다.

도는 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가해 러시아 사할린주와 양자 회담을 갖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사할린주는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수산물·임산물 등 풍부한 자원의 보고로 각종 개발사업과 인프라 구축사업이 러시아 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할린 교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제1교역 대상국이며, 사할린주에는 일제강점기 때 탄광 등에 강제 동원된 이후 냉전과 분단을 겪으며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포들의 역사가 있는 지역으로 현재 2만 7000여 명의 사할린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도는 2017년 마련한 신북방정책에 따라 북방외교를 추진, 지난 4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어르신과 현지 자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할린주 정부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양 지방정부 간 회담에는 김영명 도 경제실장과 바실리 그루데프 러시아 사할린주 투자정책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바실리 그루데프 장관 일행의 방한 및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참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할린 역사 특강, 도 소재 대학 러시아어 과 대학생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역사 사진전 개최 등 도내 사할린 한인들의 활동 내용과 도내 사할린 한인 초청 행사 당시 사할린주 부주지사 축하 영상 제공 등 교류 내용을 언급하며 "도와 사할린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또 △해양정책 공유 및 수산양식 기술 교류 △사할린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22년 한-러 지방정부 협력 포럼 참가 시 양 지역 간 우호 교류·협력 협정서 체결 △도내 국제 포럼 및 행사 초청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바실리 그루데프 장관은 충남도와 사할린주가 해양·수산·교육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내년 사할린주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할린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방 외교의 방향을 지속 모색할 방침이다.

(쿠키뉴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Состоялся брифинг по вопросам выезда на ПМЖ

8 но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ся брифинг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и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выезжают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Брифинг прошел офф-лайн формат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 других ведомст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ли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поводу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Согласно проекту этого года переезд на ПМЖ был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декабрь 2021 г., но в связи с карантинными мерами было решено немного ускорить переезд.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с Сахалина первая группа новых репатриантов отправится в Корею 27 ноября. Предполагаемая дата отправления 2-ой группы – 4 декабря 2021 г.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вумя прямыми рейсам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ернутся около 190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Брифинг для выезжающих на ПМЖ, чьи родител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живают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стоитс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16 ноября.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екре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кусного пянсе раскрыли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6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15-лет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ККЦ,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стоял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янс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актовом зале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4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м интересна культур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нжелы Пе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научились готовить вкусную начинку, а потом попробовали приготовить дрожжевое тесто. Юная Николь Ким (9лет) показала, как красиво и правильно лепить пянсе. Изыщная «косичка» при защипывании в ее руках привела в восторг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Чай с пянсе приподнял и без того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Следую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15-летия ККЦ состоится 13 ноября в 11 часов. Вас ждет Фестиваль Ссырым, в котором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люд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Организатор –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ырым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СК.

Виктория Б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остоялась лекция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8 ноябр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остоялась публичная лекция по теме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Лектором выступила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заведующи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издательским отдел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лекции стало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 клуб «Кимчи» (президент - Константин Ким).

Лекция прошла в очном и заочном (онлайн) формате и собрала более 40 человек. Вместо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двух часов, она длилась около трех часов.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звало у участников живой интерес, состоялось бур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ы докладчику задавали, как участники очной встречи, так и онлайн.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которо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большинство уроженцев Сахалина) проявляли к истории прошлого, показывает актуальность данной темы и ту роль, которую история играет для нас всех.

(Наш кор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Интервью по поводу

Недавно в мировой корееведческой диаспорологии, новой науке о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ах мира, произошло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 вышла монография философа, социолога, антрополога, извест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по корейской советской и постсоветской диаспоре В. С. Хана «Историография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связи с этим с автором беседует старейший журналист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СССР и СНГ – Брунтт Ким.

Мне всегда казалось, что историография, как и библиография, – это не столько наука, сколько описание издаваемой литературы. Автор, город, издательство, год издания и далее – краткое, на один-два абзаца, содержание книги. А для этого не требуется особых знаний. Главное –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и усидчивость.

Но вот я пробежался по очередной книге известного ученого, заведующего кафедрой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Ташкен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Низами Валерия Сергеевича Хан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Историография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и этапы развития» (Ташкент, Baktria press, 2021). Первое, что поразило, это ее объем – шестьсот с лишним страниц. Неужели у нас издано столько книг на корейскую тему?

Чем глубже я окунался в текст книги, тем отчетливее стал понимать, какую огромную, поистине титаническую работу проделал автор, прежде чем выдал ее на суд читателей.

- На книгу ушло больше десяти лет, - говорит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 - В принципе я мог бы опубликовать ее раньше, но едва ли не каждый год появлялись очередные работы по исследуемой теме. И мне приходилось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кладывать выпуск книги.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с лишним десятилетия появилось множество трудов по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х накопилось уже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если не больше. По мере накопления этих трудов возник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х осмысления: кто писал о корейцах, что писал, с каких позиций, в чем был прав, а в чем ошибалс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 это и есть такое осмысление.

Труд, действительно,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статоч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оличество упоминаемых авторов – около 500, а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источников – 638 наименований. В книге подвергаются анализу труды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ению 1937 года, участию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колхоз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обонди и т. д.), их культуре (литера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обычаям и обрядам,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бракам), справочники,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архивные источники.

- Ты из числа немногих ученых, если вообще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кто активно выступает в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СМИ по поводу недостатков в облас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не боясь «выносить сор из избы», кто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пресловутой защиты мундира и подвергает критике как работы коллег, так и новые мифы, которые сложились в публикациях активистов корейских центров, не являющихся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 облас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Вот цитата из твоей книг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и в этой области сложился круг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этой общности активно публикуются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име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общественно-гуманитарным наукам (антропологии, истории, политологии, социологии, филологии, философии, этнологии). Для этих публикаций, как правило, характерны:

- незнание имеющейся историографии;
- субъективная предвзятость;
- небрежность обращения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источниками;
- профанация методов полевой работы;
-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фактических ошибок и искажение реальных фактов;

Хан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

Окончил философский факультет (1982) и аспирантуру МГУ (1985). Кандидат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МГУ, 1986 г.). Философ, социолог, этнолог.

Работал в Институте истории Академии наук, преподавал в различ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Узбекистана (УМЭД, НУУЗ, ТГЭУ, ТГПУ) и Южной Кореи (университеты Хосею, Ханянг и Сонкюнган).

Приглашался с гостевыми лекциями в университеты США (Колумбийский, Стэнфордский, Орегонский,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Иллинойский, Калифорнии в Беркли, Канзаса и Джорджия) и Южной Кореи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университеты Мёнджи, Ханянг, Кюнпук, Чунг-Анг, Кёнги и др.)

Автор более 150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в 13 странах мира.

Выступал с докладами более чем на 100 конференциях, в том числе на 80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 Армен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енгрии, Германии, Индии, Казахстане, Кыргызстане, Новой Зеландии, Норвегии, России, Румынии, США, Турции, Узбекистане, Украине, Франции, Швеции, Швейцарии, Южной Кореи.

Участник более 20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Член редакционных коллегий научных журналов Индии, Кыргызстана, России, Турции, Узбеки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 неоправданные (иногда гипертрофированные) обобщения;
- эмоционально-экспрессивные оценки;
- недопустимое в науке менторское морализаторство;
- эклектизм.

- Видишь ли, обш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о корейц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есьма неоднородна. В ней, как и во многих работах, посвященных этн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научные знания чаще, чем где-либо, соседствуют с мифами, любительскими, а порой откровенно псевдонаучными, изысканиями.

- С чем это связано?

-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повышенным социальным спросом на информацию в этих областях, политическими играми на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чувствах, личными амбициями, желанием прославиться. Порой считается, что люб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ой или иной этнической группы «компетентен»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и этой группы,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бурному развитию мифотворчества и самых нелепых фантазий. Такое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ым, когда в условиях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издательства и типографии в погоне за прибылью готовы опубликовать всё, что угодно.

Отсутствие критicismа проявляется «в корпоративном принципе, когда корейские учёные не критикуют друг друга (мол, нас мало, мы должны держаться вместе); в конфуцианско-среднеазиатском принципе, когда молодые не смеют критиковать старших. А если последние ошибаются? И ошибаются весьма серьёзно, и при этом покидают свои должностные позиции не собираются? Вот 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они глаголят несуразны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уки вещи, а корейские активисты им внимают, как истинам в последней инстанци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за дверями корейских центров –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академ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ах – таких оракулов просто поднимут на смех. В корейской среде появились свои «доктора наук» и «академики», неизвестные в качестве таковых за пределами этой среды. В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ах я такого не наблюдал.

- Судя по объёму, твой новый труд охватил практически всю литературу по корейской тематике?

- Отнюдь нет. Хотя, конечно же, сделан серьёзный шаг в корееведческой диаспорологии. Но работы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ак говорится, еще непочатый край. Нужны отдельные историографии – по российским корейцам, по корейцам Казахстана, по корейцам Узбекистана,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русскоязыч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в Корею. Нужны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о периодам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периоду, 1937–1938 гг., военному периоду и т.д. Нужны тематические историографии. Только так возможно оформление историографии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Евразии в научную дисциплину.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Бывший глава ООН Пан Ги Мун переизбран президентом GGGI

Бывший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ООН Пан Ги Мун переизбран на третий срок, до 2023 года, президентом Глоб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зелёного роста (GGG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 штаб-квартирой в Сеуле. Его кандидатуру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40 стран-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проблемами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роста в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ах и странах с переходной экономикой. Институт был основан в 2012, а Пан Ги Мун был впервые избран его президентом на двухлетний пост в 2018 году. С тех пор к GGGI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14 новых стран-членов.

РК смягчи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До конца ноября будут смягчены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РК, сообщили 5 но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В частности, будет разрешён въезд гражданам 16 стран,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яют рабочую силу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Однако граждане Мьянмы, Филиппин, Паки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и Кыргызстана, где сложилась тяжёлая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изы только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после полной вакцинации. У них также должен быть отриц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теста полимеразной цепной реакции (ПЦР), проведённого не ранее чем за 72 часа до посадки на рейс в РК. Граждане 11 других стран будут допущены в страну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они представят отриц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ПЦР-теста. Кроме того, они обязаны будут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и по прибытии в РК. Все рабочие-мигранты,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сделали они прививки или нет,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ойти 10-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по прибытии в страну. До сих пор рабочим из Мьянмы, Филиппин, Паки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и Кыргызстана визы не выдавались. Что касается 11 остальных стран, то был разрешён ограниченный въезд с отрица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ПЦР-теста и при условии обязательного двухнедельного самокарантина.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ногие предприят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а также 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испытывают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Две недели до ЕГЭ объявлены особы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м периодом

Две недели до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18 ноября, объявлены особы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м периодом. В период с 4 по 17 ноября за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часто посещают подростки, такие как интернет-кафе, караоке-бары и учебные кафе, будут подвергаться регулярным проверкам на соблюдение санитарных требовани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санитарному состоянию школ, в помещениях которых разместятся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пункт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исклю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жения, начиная с 11 ноября в них н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очные занятия. Инфицированные COVID-19 и проходящие карантин будут сдавать единый госэкзамен в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енных местах. Для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и проходящих лечение выделены 244 койки в больницах. Для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арантине подготовлены 620 изолированных помещений. Специ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будут выделены в обычных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пунктах для тех, у кого имеются симптомы COVID-19.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кзамен сдавали 41 инфицированный COVID-19 и 456 проходивших карантин.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экзамена определяется уровень знаний по ряду предметов, а также потенци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уз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октябре аэропорты РК обслужили более 300 тыс. человек, вылетевших за рубеж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7 ноября, в октябр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эропорты обслужили 309 тысяч человек, вылетев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рейсами. Это на 18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что является признаком постепен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Особенно заметен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в такие популярные места отдыха, как Сайпан и Гуам.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на рейсах Инчхон – Сайпан увеличилось в октябре на 178,5%, а на рейсах Инчхон – Гуам – на 28,5%. В ноябре Korean Air возобновит полёты на Гавайи, в Сидней и Окленд, а Asiana Airlines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полёты на Гуам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Власти Сеула создают платформу метавселе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еула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 внедрении технологий метавселенной или виртуа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о все сфер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услуг города. Для этого к концу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платформу, получившую временное название Metaverse Seoul. Проект рассчитан на срок до 2026 года.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реализацию его первого этапа будет выделено 3,9 млрд вон или 3,3 млн долларов. Власти города планируют создать платформу с последующим внедрением в неё услуг в семи сферах, включая экономику, образование и туризм. Уже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чнут работу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ятий, в том числе виртуальная приёмная мэра города. В 2023 году будет создана виртуальная приёмная для обращений граждан. Она позволит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требуют лич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граждан. (RKI)

В Ульсане прошёл фору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дно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мегаполисов Южной Кореи Ульсане, что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прошёл 3-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бизнесменов, чиновников и экспертов и стало площадкой для активного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путей активизации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озволив многим тут же провести дел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и подписать соглашения.

Форум в Ульсане стал уже третьим по счёту. Проводится он ежегодно поочередно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начиная с 2018 года, когда впервые его провёл другой корейский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 Пхохан. В 2019 г. эстафету проведения принял Владивосток, но начавшаяся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заставила отложить его в 2020 году. В этой связи в третий раз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ошёл в этом году с 3 по 5 ноября в Ульсанском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UECO. Девиз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а фраза: "30-летни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Арктика - центр будущего мира".

Судя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и атмосфере форум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стран соскучились по деловому общению и хотели наверстать то, что было упущено из-за COVID-19. Успехи же Кореи в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 проведённое менее недели назад ослабление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которое ознаменовало для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начал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позволили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без серьёз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Форум в Ульсане безусловно превратился в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ую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встретиться, напрямую пообщаться и обменяться мнения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на этот раз в работ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5 регионов - 17 из Кореи и 18 из России. Корейские регионы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форуме в полном составе, а от России участвовали 11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ещё семь регионо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что охватило пространство от Владиво-

стока до Карелии и Мурманск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количестве участников, то организаторы и СМИ дают цифру "от 800 до 1000" бизнесменов, чиновников, политиков, экспертов, журналистов и пр. От России прибы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ая делегация численностью более чем сто человек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ем Чекуновым.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чиновников и круп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из РФ такж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Главным днём форума стал четверг 4 ноября, когда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шла конференция, где участники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различных секций обсуждали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ключая торговлю, инвестиции, высокие технологии, судостроение, транспорт, атомную энергетику,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РФ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КНДР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По словам корейских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их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овали сферы совмест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ктики,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атомная энергетика, водородная отрасль, а также торговля,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судостроение.

Учитывая, что в связи с 30-летием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2020-2021 г.г. были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лены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годом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нынешний форум в Ульсане не стал ограничиваться только вопросами делов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тдельная сессия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а посвяще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музыки и искус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форума состоялось также общение парламентариев дву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провели сессию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участники вели переговоры, которые, судя по появившимся в корейских СМИ публикациям, позволяют надеяться на скорое оживлен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Тенденцию на реанимац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дтверждают и объективные данные.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варооборот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величился на 47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2020 года. За время с января по август 2021 года торговля РФ и РК превысила 20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лег Кириянов (Ульсан - Сеул, РФ)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школа онлайн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 1 по 3 ноября открыла свои онлайн двер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школа «Интенсив по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 интересом и пользой провести осенние каникулы, ведь осень считается временем чтения книг и наиболее плодотворным периодом для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Школа призвана стать завершающим этапом большого проекта, реализуемого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гранта «Английские слова и смыслы в лабиринтах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мир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сорциума «Сахалин – 1».

Реализация идеи проведения школы стала возможна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манды, воплощающей в себе три гла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любого общ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е, бизнес и национальную самобыт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флагман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еализует сегодня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област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е кураторы проекта – кафедра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и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 ведут обучение нескольким ино-

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английскому, немецк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понскому и китайскому.

Бизнес-направление в проекте представлен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нсорциумом «Сахалин – 1»,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ходит российская нефтяная компания «Роснефть» через свои дочер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СОДЭКО», индийская «ОНГК Видеш» 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ЭксонМобил. Проект «Сахалин-1», опер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компания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проектов в России. Компания являет собой прекрасный пример сочетания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необходимых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и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принципа ведения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бизнес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онсорциум реализовал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социальных грантов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поддерживает вс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мотивации к из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Программа работы школы

включала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с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встречи с носителям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открытую лекцию-экскурсию по Сахалину,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ую игру "Brain Battle", а также конкурсы и викторины. Все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о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Instagram на странице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ifiiv_sakh.

Слушателями школы стали учащиеся раз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ОУ Гимназия №1 им. А.С. Пушкина, МАОУ Гимназия №2, МАОУ Гимназия № 3, МАОУ СОШ №8 им.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Г. Асапов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БОУ СОШ №7 им. Д.М. Карбышева г. Оха, МБОУ Гимназия п. Ноглики, МОУ СОШ №2 г. Томари, МБОУ СОШ №2 и МБОУ СОШ №3 г. Невельска,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школа «Интенсив по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предоставила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прекрас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олнить свой багаж страноведческих 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знаний, узнать тайны ЕГЭ и специфика задани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И. Корнеева

Огромный кит и маяк Анива украсили вагон Сахалина в составе брендированного поез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который запущен в московском метро

Торжественный запус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кспресса» состоялся в депо «Красная Пресня» Москов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во вторник, 9 ноября. Это событие открывает серию мероприятий Дней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Брендированный поезд вышел на Арбатско-Покровскую линию и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по ней ближайшие полгода. Поезд состоит из 10 вагонов, в каждом из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лен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туристическом потенциале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б основных проектах развития макрорегиона, возможностях учебы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церемонии запуска поезд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министр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и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Москов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по развитию клиентских сервисов и работе с пассажирами Юлия Темникова.

На внешней стороне секции вагона Сахалина пассажиры метро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символ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ре, маяк и кита. Регион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российских лидеров по добыче нефти и газа, по улову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 в то же время — это место, пропитанное историей. Маяки, подземные лабиринты, старинные крепости и храмы притягивают турист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нутри вагона пассажиры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основ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десь размещ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его известном горнолыжном курорте, снеговых маршрутах, лежбище сивучей в Невельске, бухте Тихой, вулканах, водопадах и друг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х. Также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м предлагается насладиться морскими приключениями: заняться сёрфингом, дайвингом, каякингом или отправиться на рыбалку и, конечно, попробовать местные морепродукты. На Сахалине бурно развиваетс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туризм, ведь такие морепродукты, как здесь, найти очень сложно.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ахалинской кухней, а также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объектами пассажиры московского метро смогут, отсканировав специальные QR-код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вышел на линию Москов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в четвёртый раз. Поезд состоит из 10 вагонов, 6 из них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потенциале 11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разделены на 2 секции, ещё 3 вагона посвящены проектам развития, возможностям учёбы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уникальной природе макрорегиона, «фишкой» экспресса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 вагон-ресторан.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по Арбатско-Покровской линии пол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за это время на брендированном поезде прокатятся более 2 млн пассажиров.

Дн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мплекс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й в пятый раз проходит в столице в ноябре-декабре 2021 года. По традиции старт мероприятиям дал торжественный запус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кспресса». На станции метро Выставочная с 22 по 28 ноября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интерактивное презентационно-выставоч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МетроЭкспо, которое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едставит посетителям современ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туризм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это же время запустится и Больш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ест, побе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получат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утевк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рамках Дней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пройдет этап Олимпиады «Ближе к Дальнему». Победители Олимпиады полу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к результатам ЕГЭ. А 10 декабря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ойдет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лауреатов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мени В.К. Арсеньева. Комплекс мероприятий «Дн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2021»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Организатор мероприятий – НО «Фонд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Новости о Дня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убликуют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ddv.moscow.

Свежие овощи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упны жителям все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цены в фирменном магазине «Тепличного» – одного из главных островных совхозов.

–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с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ддержку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едь сильное собственно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ство обеспечивает укрепл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островов, стабильное снабжение жителей ка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в необходимом объеме. «Тепличный» – это одно из наших флагманских хозяйств. Нужно, чтобы свежие качественные овощи были доступны жителям не только област-

ного центра, но и всех районов, включая самые отдаленные. Важнейший приоритет – сохранение здоровья людей, а качественное и полноценное питание – значим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этой задач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о овощей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нарастало в три раз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производят более 20 килограммов тепличных овощей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ого жителя. По России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овощами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8 килограммов, а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 меньше 3-х.

По словам губернатора,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теплиц, наращивание объем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видов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овощей.

Магазин «Овощи Тепличные» на улице Чехова работает почти 20 лет. В мае торговая точка открылась посл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Здесь ввели систему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я. Покупатели оценили удобство – уменьшились очереди, а объемы продаж выросли в 1,5 раза.

Пенсионерка Елена Бубнов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живет в районе «Луча», н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в неделю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зжает за покупками в этот магазин.

– Продукция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Огурцы по 150 рублей, помидоры по 200 рублей. Очень вкусные! Сегодня закупились зелеными помидорами по 30 рублей. Они у меня дома созреют. Еще беру редис, морковь, капусту, картофель, зелень разную. Помню времена, когда овощи были на вес золота, а зимой о сахалинских витаминах оставалось только мечтать, – рассказала Елена Ивановна.

Сегодня фирменная сеть совхоза «Тепличный» включает 10 точ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ездная торговля организована в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Холмском и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В села приезжают автолавки «Купава».

Фирменные объекты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ходят в торговую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К ней же относятся социальные магазины, автолавки. Вс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ботает 715 торговых точек экономформата, и сеть постоянно расширяется. Пользую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ярмарки.

– Сегодня высоко довер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Она свежая, качественная и присутствует в прилавках круглый г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и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икладывают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высоки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спрос. Также мы создаем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ой сети и прямых каналов продаж,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В торговой сети экономформата сегодн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чти четверть всег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Цены на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там снижены в среднем на 15 процентов.

Нов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в Аниве примет учащихся в сентябре 2022 года

Здание готово на 70 процентов, подрядчик идет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Ход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провер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Анивский район.

– Всегда, приятно, когд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дет по плану. А если удается сдать объект раньше – вдвойне. Но при этом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следить за высоким качеством, –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строител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здания, состоящего из трех блоков, разместят малый зал на 105 мест и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ный зал на 350 мест, костюмерные, артистические, театральные классы и ряд технических помещений. Крыльцо главного входа запроектировано с широкой галереей, которую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к эстраду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школой.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омещения, классы живописи и рисунка, класс истории искусств, классы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фики, помещение для обжига глины, фондохранилище, классы хореографии и скульптуры.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 классы музыкально-теоре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музыкальной информатики, классы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духовые, клавишные и струн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народного и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пения, хоровой класс, класс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 Это очень долгожданный объект для детей и педагого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аварийное здание было демонтировано, отделения у нас оказались разрозненными. Сейчас ребята занимаются в трех зданиях и это, конечно, неудобно. Особо отмечу, что мы вышли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региона ввести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о ударно-духовым инструментам. Интерес к этому стал возраст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как только в регион начали регулярно приезжать военные оркестры –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Спасская башня». Поддержку уже получили, – рассказала и.о. главы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ветлана Швец.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будет готова принимать учащихся не только из Анивского, но и соседних районов, как и новый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ведутся внутренние отделочные работы, монтаж водопровода и электроприборов.

В комплексе разместят гимнастический зал на 20 человек, с сопутствующими помещениями, детский плескательный бассейн на 6 детей, а также большой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бассейн,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48 человек. Для зрителей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плаванию предусмотрена

трибуна на 90 мест. Кроме того, ФОК вместит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на 40 человек. Сдать объект планируют летом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Смирных посл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открыли детский сад на 115 мест

Детский сад №17 «Солнышко» получил новые игровые зоны,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у и футбольное поле.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стал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 Наши дети заслуживают лучших услов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Поэтому островные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долж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Рад сообщить об окончании масштабных работ в Смирных. Детский сад «Солнышко» получил новый облик, оборудование,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Не сомневаюсь, малыши будут ходить в него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здравляю с этим большим событием ребят и их р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работников учреждени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закрыли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августе 2019 года. Здесь заменили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пожарную сигнализацию и систему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Рабочие обновили фасад здания, выполнили внутреннюю отделку помещений и уложили экологичное напольное покрытие. В группах первого этажа установили теплый пол.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медицинский блок, кабинеты педагога-психолога и учителя-логопеда.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оснастили пищеблок. Закупили новую мебель.

Преобразилась и территория детского сада. Подрядчик смонтировал новое ограждение и уличное игр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лощадки получили мягкое покрытие и тентовые навесы.

– Теперь у малышей появились спортивная зона, футбольное поле и площадка по обучению правилам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ысадили деревья и кустарники,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или скульптуры кота Леопольда, почтальона Печкина, Мальвины и Буратино,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тепан Смажов.

Отметим,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6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апремонт провели в «Теремке» в Новотроицком, «Солнышке» в Смирных и дошкольной группе СОШ села Омор. Территорию благоустроили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вельска и Корсако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ейчас также строятся 4 детских сада и 2 школы-детских сада.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озведение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 330 мест в Дальнем и на 40 мест в Новом, а также школы-детского сада на 295 мест в Кировском.

Важно качественн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зимнему содержанию дорог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мэ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ем Надсадным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и ряд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х участков дорог.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оказались улиц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Ленина и Украинская.

–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ный сезон, и мы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тем, как выполняется работа. Безусловно, её надо продолжать. Потому чт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и дороги – это то, что особенно волнует жителей. Особо отмечу, что сейчас нужно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зимнему содержанию дорог. В прошлом сезоне мы ввели новый стандарт и трехлетние контракты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в шесть раз увеличил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се это позволило поднять качество уборки дорог и тротуаров на принципиально иной уровен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м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формат и увеличивать число улиц,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одержать по новому стандарт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улице Комсомольской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ы на участке от моста через ручей Пригородный до улицы Пуркаев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ыполнена на трети отрезка. Сейчас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от перекрестка с улицей Емельянова в юж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Мы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перекресток и открыли его для движения. Сейчас готовится щебеночное основание еще 100 метров пути,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заасфальтируем. Если позволит погода, еще участок до поворота на «Аист» заасфальтируем. Если нет, на зиму все равно откроем участок для движения. В холодное время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основания на оставшемся отрезке, а также прокладке сетей водопровода и ливневой канализации. Все идет по графику. Осенью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есь участок будет готов,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рилл Rogozin.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полностью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 участок дороги от заезда на ОТБ до улицы Сахалинской длиной 2640 метров. Расширение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позволило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ть заторы и увеличить трафик движения.

На улице Украинской работы завершены на участке от улицы Ленина д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ереезда. В рамках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озведен новый мост, что также позволило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проезжую часть и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дороги. Ранее, капремонт был выполнен на участке от Дорожной больницы до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ремонт Украинской планируют осенью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해외 입양동포 간 네트워킹의 장, '2021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 행사 폐막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2021 OKF Gathering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행사가 지난 6일(토)부터 8일(월)까지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세계 14개국 390여 명의 입양동포와 자녀, 양부모 등 동반가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한국, 모국방문의 의미', '나와 나의 뿌리' 등 참가자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전통놀이, 한국 알아가기 퀴즈 및 입양동포단체 소개 등을 통한 지역 간, 단체간 네트워킹 세션 ▲정부 및 유관기관의 가족찾기 사업 소개, 'F-4 비자 소개 및 취득절차 안내' 및 '국적법 및 국적회복 관련 안내' 등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세션 ▲한국의 전통 공예, K-POP, K-SPORTS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 체험 ▲입양 동포 권익 신장하기(친족 찾기

중심으로), 입양동포네트워크 역량 강화하기, 입양인시민권 법안 채택 지원하기 등 입양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단체장포럼(비공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호평을 받았다.

8일(월) 11시부터 진행된 폐회식은 공모전 시상 및 폐회사, 참가자들의 활동으로 구성된 스케치영상 등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광일 사업이사는 "입양동포분들을 12년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하며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우리는 하나,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입양동포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하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입양동포들이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CIS서 백신 접종한 재외동포들도 자가격리 면제해달라"

우즈베키스탄한인회, 대사관에 자가격리 면제 청원서 제출 "정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인정하지 않아... 고국 방문 길 막혀"

우즈베키스탄한인회(회장 강창석)은 지난 10월 29일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을 방문해, 러시아·CIS 국가에서 백신을 접종한 재외동포들도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노성준 회장과 김도윤 부회장, 우즈베키스탄한인회 강창석 회장 명의로 작성된 청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을 수신처로 쓰여졌다.

청원서에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허용 ▲항체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상 항체 보유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허용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러시아·CIS 각 공관에 공급해 동포들에게 접종 실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직계가족에서 친형제, 자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중 러시아·CIS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을 인정하지 않아, 50만 러시아·CIS 동포들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접종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스푸트니크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되지 않은 백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해외에서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접종해 최대한의 항체를 보유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가격리 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며 "항체 생성여부와 상관없이 백신의 종류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시키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요구는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아니라, 한국 교민과 재외동포들이 러시아·CIS에서 백신 접종 완료 시 한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대우와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이다.
"러시아·CIS 국가에서 백신 접종한 재외동포들도 자가격리 면제토록 청원 합니다!"

수신 : 문재인대통령님,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귀중

발신 :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노성준, 우즈베키스탄 한인회회장 강창석

2020년 1월부터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전대미문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전 국민에게 1차~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기업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CIS 재외동포들에게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은 커녕 고국 방문도 제대로 할 수 없

도록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중, 러시아·CIS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 인구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을 인정하지 않아, 50만 러시아·CIS 동포들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몰 백신으로 유명한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백신은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은 WHO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인제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WHO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세계 7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정부자체의 검증 없이, WHO의 인증에만 의존한다면 질병관리청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작용을 우려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스푸트니크 백신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접종하여 최대한의 항체를 보유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가격리 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체 생성여부는 무시하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시키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졸속 행정을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발 묶인 러시아·CIS 50만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 하는 노력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러시아·CIS 50만 동포의 청원내용>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면제 허용 항체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상 항체 보유자에게 자가격리면제 허용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러시아·CIS 각 공관에 공급하여 동포들에게 접종 실시

- 자가격리면제 대상을 직계가족에서 친형제, 자매까지 확대

우리 정부는 매년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한다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정책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외동포들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항상 조국의 발전과 국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으며, 조국이 어려운 실정에 당면할 경우 마음을 모아 조그만 성의를 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아니고, 한국교민과 재외동포들이 러시아·CIS에서 백신 접종 완료 시 한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인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대우와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2021년 10월 28일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노성준, 부회장 김도윤
우즈베키스탄한인회, 회장 강창석
(출처: 재외동포신문)

В сахалинском селе откроют амбулаторию с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аптечным пунктом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ачнет принимать уже с 12 декабря. С просьбой ускорить открытие амбулатории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братились жители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во время личного приема граждан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иемной Президента РФ.

– Амбулатория нам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а. В ней жители Ильинского – в том числе мои родители – смогут оперативно получать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оскольку добираться до райцентра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долго и неудобно, – обратилась от лица сельчан Евгения Кушак.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Ильинском приобретено здание под размещение амбулатории с аптечным пунктом. Сейчас проходит процедура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а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медпункте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терапевт, педиатр и стоматолог. Кроме того, в амбулаторию будут приезжать бригады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В учреждении смогут оказывать неотложную помощь, проводить процедуры, включая вакцинацию – для этого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В течение дня работники учреждения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до 50 человек.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здании предусмотрен пандус.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 в амбулатории будет внедрен проект «Умный ФАП».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жителям села станут доступны расширенный спектр лаборатор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и оператив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област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о видеосвязи.

–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абсолютный приоритет для нас. Безусловно, все основ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люди должны получать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Развитие городов и сел должно сопровождаться обновлением медици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ажно поставлять в районы новейш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развивать мобильные 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сыщать больницы и поликлиники кадр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и впрямь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решением этих вопрос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в ходе личного приема граждан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брат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а. Сахалинка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у губернатора о сроках окончания ремонта инфе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По словам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 12 декабря подрядчик завершит замену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ремонт фасада и кровли здания. Затем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на проведение внутренних отделочных работ,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мар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едлаг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просе о раздельном сборе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Ф проводи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прос об отношении жителей к раздельному накоплению и сбору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ем могу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частности, жителям предлагается высказать мнение о том, нужно ли разделять отходы, подели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об участии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и существующих пока сложностях, а также предложить свои идеи, как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мусора.

Полученные данные должны помочь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истему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Пройти опрос можно по ссылке на сайте федера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http://www.mnr.gov.ru/activity/rmo/opros/>.

Напомним,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дрили в июле 2021 года. Начали с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установили 449 синих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авить еще 105 емкостей.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складирования пластиковых бутылок, флаконов от бытовой химии, стекла, алюминиевых и металлических банок. С июля по октябрь собрано около 290 тонн отходов из сетчатых емкос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й форум «С заботой о будущем»

3 дека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сахалин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форум «С заботой о будущем». Форум проводит с 1998 год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Эк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Родник» совместно с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при партнерской поддержке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дети, подростки и молодежь подводят итоги свое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и природоохра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мениваются опытом по проведению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находят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в программе форума: выступления делегаций, встреча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о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резентация итогов проекта «Загляни в лесную школу», поддержанного Фондом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форума могут учащиеся школ, домов творчества, средних 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е группы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олодые учены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ают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6 ноября на e-mail: Rodniklew@mail.ru,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242) 76-27-13, 8 962 581 87 13.

Положение о форуме и форма заявки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Родника».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만두의 날 행사 준비 중

새해 겨울 명절이 다가오기 전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활발한 준비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12월 18일(토)에 '만두의 날' 축제가 열린다.

전통적으로 축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에 따른 행사가 진행되며 미식 마라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 경연이 펼쳐진다. 행사의 절정으로 가가린 문화·휴식 시공원에서 남녀노소를 위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인 축하 산책이 있다.

소비시장 및 식품자원청에 따르면 모두가 좋아하는 '만두와 그의 친구들' 미식 행사가 11월 29일(월)부터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도심 식당들에서 요리사들이 흥미로운 조리법으로 만든 만두, 와레니키, 찐만두, 라비올리, 힌칼(카프카즈의 전통 요리), 교자(중국 구운 만두), 담섬 등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미식 마라톤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역 조치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만두의 날 행사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전통적으로 프로그램에는 푸드코트, 만두 빨리 먹기대회, 상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

'만두의 날' 축제의 자세한 프로그램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День пельменя готовятся празднов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ась актив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едновогоднему зимнему празднику — Дню пельменя,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оится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18 декабря.

Традиционно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различные тема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е встречи для юных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конкурсы. Кульминацион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нут праздничные гулянья с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департамент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полюбившийся всем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стартует 29 ноября. Жители города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интересные вариации рецептов пельменей, вареников, мантов, ravioli, хинкали, гедза, димсамов от шеф-поваров городских завед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Марафон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санитарных норм и мер по недопу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пельмен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Традиционно в программе: работа фуд-корта, конкурс на скоростное поедание пельменей, лотере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одробн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День пельменя"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